

# 예금금리 '찝끔' · 대출금리 '깡충'

10월 주담대 금리 2.89%  
... 3개월 간 0.23%p 상승

예금 금리 1.41%  
... 0.1%p 증가 그쳐

은행들 우대이율 인하하고  
금리 높은 예금은 중단도

가계부채 증가에 따라 수익이 늘어난 은행들이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을 벌리는 식으로 이자장사를 확대하면서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에서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를 점검하겠다고 해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16년 10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10월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3.08%로 한달 전보다 0.05% 상승했다.

일반신용대출과 집담대출 금리는 유사했지만 가계부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89%로 0.09%p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6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인하한 뒤 7월에는 역대 최저 수준인 2.68%로 내려앉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3달 만에 0.23%p포인트가 뛰어오르며 3%대에 다가섰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저축성 수신(예금)금리는 찝끔 올랐다. 10월 예금 금리는 1.41%로 3개월 전보다 0.1%p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기준 금리 인하 요인이 없었던 지난



봄 업 코리아 수출상담회  
지난달 3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봄업코리아(Boom-Up Korea) 수출상담회'에 참석한 국내기업들이 1:1 수출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5월과 비교하면 주택담보대출은 5개월 만에 과거 금리 수준을 회복한 반면 수신 금리는 지난 5월 1.54%보다 0.13%p포인트 모자란 것으로 조사됐다.

신한은행은 금리가 높은 수신상품의 판매를 아예 중단하기도 했다. 백화점과 연계한 고금리 적금이라 홍보했던 '신한 롯데백화점 러블리 적금'은 다음달 1일부터 가입할 수 없게 됐다.

러블리 적금은 기본금리 연 1.5%에 최대 연 8.5%의 리워드(환급금) 혜택을 제공, 은행 정기적금의 평균 금리보다 수익률이 높은 상품이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금융감독원도 시중은행들의 금리 산정체계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당초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2% 미만의 특혜(우대) 금리에 대해서만 들여다볼 계획이었지만 대출금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뒤늦게 금리 산출 체계를 전반적으로 조사하

겠다고 밝혔다.

진용섭 금감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주례임원회의에서 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3분기 깜짝 실적을 낸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찝끔 올리고 대출금리는 대폭 올리는 식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넘는 상황이어서 대출 금리를 0.1%만 올려도 소비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가계부채 증가는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비판 여론이 커지자 뒤늦게 규제에 나서는 뒷북 행정을 보이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가 큰 사안은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 쏘카, 카셰어링 최초 '테슬라' 도입

고객 50명 대상 무료 시승 이벤트 진행

차량공유기업 쏘카는 업계 최초로 '테슬라 모델S'를 도입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프리미엄 세단 테슬라 모델S는 올해 3분기 북미 지역 프리미엄 세단 시장 판매 1위를 차지한 모델이다.

주행 매니지먼트 시스템, 차선이탈경고, 주차센서, 자동 긴급 브레이크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센터 패시위에 자리한 17인치 터치스크린을 통해 차량 내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

쏘카는 이번 테슬라 도입을 기념해 쏘카 이용 고객 50명을 대상으로 무료 시승 이벤트를 진행한다. 쏘카 이벤트 페이지(<https://>

[goo.gl/17q53x](https://goo.gl/17q53x))에서 원하는 시승 날짜와 시간을 골라 응모하면 된다. 대여요금과 주유요금, 보험료는 전면 무료다.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의 시승 일정은 내달 6일부터 오는 2017년 1월3일까지다. 오전과 오후 1회 4시간씩 시승할 수 있다.

쏘카가 도입한 테슬라 모델S는 고객 시승 이벤트 이후 친환경 전기차 카셰어링 및 커넥티드카 연구에 활용될 전망이다.

또 쏘카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카우앤독 1층 주차장에 테슬라 플래그십 존을 마련하고 테슬라 차량을 전시할 예정이다. /뉴시스

## '커넥트 에브리씽' 카카오 분석서 나와

대한민국 스마트폰 이용자의 95%가 하루 평균 55번 이용하는 카카오, 무료 서비스인 카카오톡은 어떻게 성장한 걸까. 카카오는 아이유 소속사들과 2조원 가까이 주고 샀을까. 카카오는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창업 10년만에 국내 최대 모바일 기업으로 성장한 '카카오'를 해부한 책 '커넥트 에브리씽(Connect Everything): 카카오 이야기'가 30일 나왔다.

책은 카카오가 2006년 12월 작은 벤처기업 '아이위랩'으로 출발해 거대한 모바일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분석했다. 기획부터 집필까지 카카오와 별도로 진행됐고, 프라이버시 논란·문어발식 사업 비판 등 카카오의 암적 성장 과정에서 벌어진 각종 이슈까지 균형있게 다뤘다.

현재 카카오·네이버 출신기자인 장 운희는 카카오톡 성장 과정과 다음카카오 합병 출범, 카카오 사명 변경과 재출범, 팟콘 인수, 신사업 이슈 등을 최전선에서 지켜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 주요 임원진을 인터뷰하고 다양한 관계자들을 만나며 카카오톡 입체적이면서 흥미롭게 풀이할 수 있었다. 김범수 의장의 카카오 창업 이야기부터 카카오톡 성공 요인, 다음카카오 합병, 모바일 전략, 독특한 기업문화 등을 종합적 시선에서 취재·분석했다. 한·중·일 모바일 메시지 삼국지, IT업계 86학년 의장이 많은 이유, 카카오와 네이버 창업주는 동업하던 사이란 점 등 흥미로운 업계 이야기도 전한다.

책 말미에는 '모바일 온리' 시대의 기업 자세를 '스파크(S.P.A.R.K)'라는 5개 키워드로 분석했다. /뉴시스

## 보험다모아 출범 1년

### 온라인 자동차보험 점유율 15%로 늘어

보험다모아 출범 1년 이후 온라인 자동차 보험 점유율이 15%까지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센터포인트에서 보험다모아 출범 1주년 기념식을 열고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보험다모아는 지난해 11월30일 핀테크의 일환으로 모든 보험상품을 인터넷을 통해 비교, 가입할 수 있도록 구성된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이다.

온라인 전용 자동차보험 시장의 경

우 보험다모아 출시 전 수입보험료 비율이 11.2%(2015년 상반기·4863억원)에서 11.4%(2015년 하반기·5701억원)으로 0.2%p 증가에 그쳤다.

보험다모아 출범 이후 올해 상반기 온라인 전용 자동차보험의 수입보험료 비율은 15.2%로 3.8%p 상승했다. 금액도 7799억원 36.8% 늘어났다.

또 보험료가 15% 이상 저렴한 온라인 전용 자동차 보험 취급사가 1개에서 9개로 많아졌다.

보험다모아의 방문자수는 월 평균 9

만명에 이르러 11월1일 기준 100만명을 넘어섰다. 탑재된 보험 상품 수도 217종에서 1년새 322종으로 48% 늘어났다.

가입가능한 상품은 ▲자동차보험 11종 ▲보장성보험 178종 ▲여행자보험 22종 ▲연금보험 38종 ▲저축성보험 47종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26종 등이다.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1%가 보험다모아에서 보험 가입을 시도했고, 이 가운데

상반기 수입보험료 비율 3.8%p ↑  
금액 7799억원 36.8% ↑

75%가 온라인 전용상품을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동차보험(33%) 가입을 위해 보험다모아에 접속했다고 응답했고, 단독형 실손의료보험(22%)과 여행자보험(16%), 보장성보험(14%) 등이 뒤를 이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단독형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온라인 채널에 가장 적합한 상품"이라며 "보험업계가 온라인 채널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 이통3사, '갤럭시 온7' 출시... 지원금 KT 최대

이동통신3사가 삼성전자의 보급형 대화면 스마트폰 '갤럭시 온(On) 7' 판매를 30일 일제히 시작했다.

갤럭시 온7 출고가격이 39만19300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공시 지원금(일명 보조금)은 KT가 가장 후하다.

이날 이통사 공시 내역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가 가장 많이 쓰는 5만 원대 요금제 2년 약정 기준으로 KT는 2만17000원, LG유플러스 16만4000원, SK텔레콤 15만4000원의 보조금을 책정했다.

6만 원대 요금제에서는 KT 26만원,

SK텔레콤 17만19000원, LG유플러스 16만16000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여기에 휴대폰 대리점이 재량으로 집행하는 15%의 추가 보조금, 이동통신사의 제휴 카드 할인 혜택을 더하면 갤럭시 온7의 구매가는 더욱 낮아진다.

한편 갤럭시 온7은 대화면 중저가 스마트폰으로 5.5형(138.8mm) 넓은 화면에 3300mAh 배터리 일체형으로 디자인됐다. 8mm 얇은 두께에 색상은 블랙과 골드 2가지로 나왔다.

/뉴시스



# 부안으로 마실 오세요

주소: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67, 202호

만복건설 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 扶來滿福